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종합적인 어린이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도쿄
문화·디자인	3	놀이의 문화적 · 교육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전 연령대 대상의 대형 놀이 공간 설립	리옹
	4	2020년 올림픽 · 패럴림픽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시작	도쿄
산업·경제	7	‘리옹,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라벨로 친환경 이미지 강화	리옹
행정·재정	9	노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원로 대표의 선출	원헨
	10	일자리 창출과 교육을 강조한 2013년 주정부 정책방향 발표	뉴욕
도시환경	11	주택용 태양광발전 보조금 제도를 대체할 ‘지붕의 힘’ 프로젝트 시행	도쿄
	13	‘도쿄의 녹지를 지키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민간단체 선정	도쿄
	15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 내 과실수 수목을 장려하는 워크숍 개최	뉴욕
도시교통	17	미국 가구통행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통행 패턴의 변화	미국
	19	시내버스 정류장의 70%가 장애인 휠체어 이용이 가능	런던
	20	보행 친화적인 교통정책으로 교통혼잡 개선	폰테베드라
	22	‘조심해!’라는 도심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전개	시드니



헤드라인 뉴스(건강·복지)

1. 종합적인 어린이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도쿄都)

○ 도쿄都 교육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어린이 기초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9년 7월 ‘어린이 체력 향상 추진본부’(子供の体力向上推進本部)를 설립하고, 2010년 7월에 “종합적인 어린이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제1차 추진계획”(総合的な子供の基礎体力向上方策: 第1次推進計画)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2013년 2월 21일에는 제2차 추진계획을 신규로 수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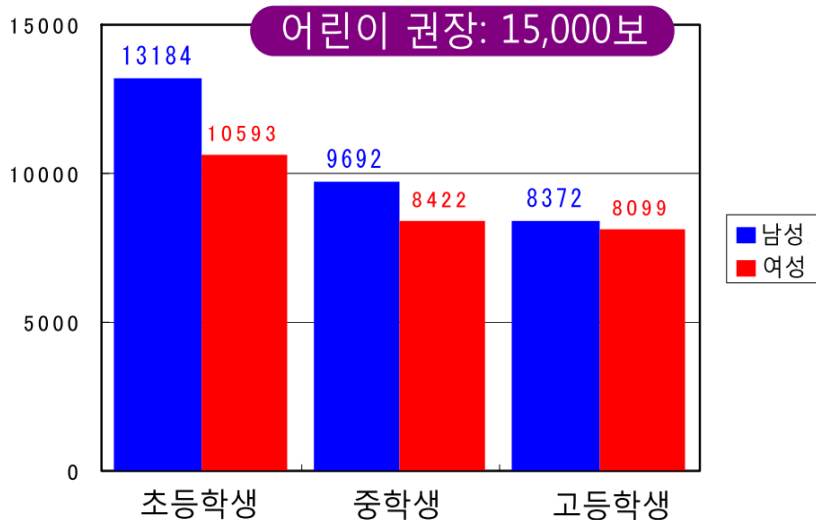
- 제1차 추진계획에서는 2012년까지 전국 평균치를, 2020년까지 1970년대 수준으로 체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체력 저하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일상생활에서 활동량 증진을 위한 노력, 야외놀이 및 운동·스포츠를 위한 시간·공간·동료의 확보, 스포츠의 진흥과 학교 체육의 내실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음.

· 그 결과 체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으며, 이로 인해 도쿄都의 모든 학교에서 체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침이 마련되었고, 실제로 학생들의 체력이 향상되었음.

· 하지만 야외놀이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인 점, 초등학생에 비하여 중학생·고등학생의 체력이 저하되고 있는 점, 운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의 수가 증가 추세인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2012년도 어린이 체력현황을 살펴보면, 운동습관·생활습관 측면과 체

력·운동능력 측면에서 도쿄도 어린이들의 신체기능이 전국 평균에 여전히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아동·청소년의 1일 신체활동량(1일 평균 보행량)>

- 운동습관·생활습관 측면: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량이 감소되고, 운동을 하는 어린이와 하지 않는 어린이 간의 양극화가 심하며, 50% 이상의 어린이들이 하루 2시간 이상 텔레비전을 시청함.
 - 체력·운동능력 측면: 전반적으로 전국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추진계획의 수립 후 개선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났음. 하지만 전국평균치보다 민첩성, 지구력이 특히 낮은 수준임.
- 이에 따라 1차 추진계획이 “의식변화”를 목표로 했다면, 2차 추진계획은 “행동변화”를, 즉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활동적 생활(active life)의 실천을 목표로 삼고, 운동량 증가를 위한 4대 기본전략과 체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함.

<제2차 어린이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의 기본전략 및 시행방안>

구 분	내 용
기본전략	· 수준 높은 교육의 실천 · 매니지먼트 사이클(management cycle) 기법의 활용 · 유아기부터 운동의 실천 및 홍보의 강화 ·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시행방안	· 초등학교에서 1일 60분 놀이·운동시간의 확보 · 뇌와 몸을 조정하는 코디네이션 교육을 전체 학교에서 실시 · 지구력 증진을 위해 5분 달리기와 줄넘기의 실천 · 자세·행동교육 및 집단행동 교육의 적절한 실시 · 초·중학교 중 ‘활기찬 생활 실천학교’(生き生き生活実践校)의 시범 지정 · 도립 초·중·고 중 ‘체력·기력 단련도장’(体力気力鍛錬道場) 지정 · 학년별 체력·운동능력의 미니멈 모델 개발 · 교육위원회의 방침에 체력향상에 관한 항목을 추가 · 체력 향상의 목표와 대책 등을 학교경영계획에 구체적으로 명기 ·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 먹기(早寝早起き朝ごはん) 운동’과 주 1회 ‘게임을 하지 않는 날’의 실천 · 운동의 보급 및 계발 등

주: 매니지먼트 사이클이란 경영관리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계획, 조직, 명령, 조정, 통제”의 5개의 기능을 순환시키는 과정을 의미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02/20n2l700.htm)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02/DATA/20n2l700.pdf)

문 화 · 디 자 인

놀이의 문화적·교육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전 연령대 대상의 대형 놀이 공간 설립 (프랑스 리옹市)

- 리옹市는 콕플루앙스 개발 지구에 1,800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놀이 공간 “루도 폴”(Loudopole, www.quaidesludes.com/)을 설립함. 루도폴은 유럽 최초의 게임과 장난감으로만 채워진 놀이 공간으로서 연령 등에 상관없이 모든 범주의 대중

에게 개방되며, 또한 놀이와 관련된 연구센터의 기능도 겸함.

- 영아용 장난감에서 비디오 게임까지, 보드게임에서 변장도구까지, 나무 장난감에서 무선조종 로봇까지 1만여 가지의 게임과 장난감이 준비되어 있고, 현장에서의 이용 또는 대출이 가능함. 가족 전체가 놀이도구가 마련된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하고, 각자 취향에 따라 게임을 할 수 있음. 흥미로운 장난감은 현장에 설치된 매장에서 바로 구매도 가능함. 또한 ‘놀이교실’에서는 2시간 동안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어, 부모들은 그 시간에 같은 건물에 있는 쇼핑센터에서 장을 보거나, 영화를 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 개인회원은 3~5주간 대출이 가능하고, 단체회원으로는 지역 내 90여 각급 어린이집, 학교, 지역 내 각종 문화센터 등이 가입하여, 각 단체의 프로그램에 맞추어 시기별로 장난감과 게임도구 등을 대출할 수 있음. 특수학교 교사나 장애아동 부모에게는 아동의 기능발달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함께 적합한 놀이도구를 제안하고 있음.
- 리옹市가 루도폴을 설립한 목적은 편안한 놀이 공간과 질 높은 놀이도구로 시민에게 다양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의 창의력을 증진하며, 세대간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게임과 장난감의 문화적·교육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서임.
- 시청, 시의회, 도청 등 공공부문의 지원과 함께 문화단체, 게임·장난감 관련 연구자, 게임·장난감 개발업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해서 ‘놀이’의 문화적 가치를 옹호하고 발전시키려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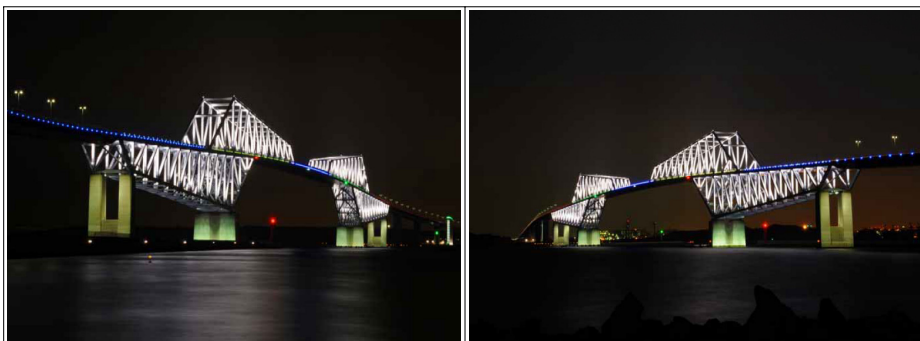
(www.dailymotion.com/video/xqj89f_le-ludopole_fun)

(www.lyon.fr/page/enfance-et-education/les-loisirs-pour-les-junior/ludopole-a-vo-us-de-jouer-.html)

2020년 올림픽·패럴림픽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시작 (도쿄都)

- 도쿄都는 2020년 올림픽·패럴림픽 유치를 위해 도쿄都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도쿄 레인보우 브릿지와 게이트 브릿지에서 특별 점등행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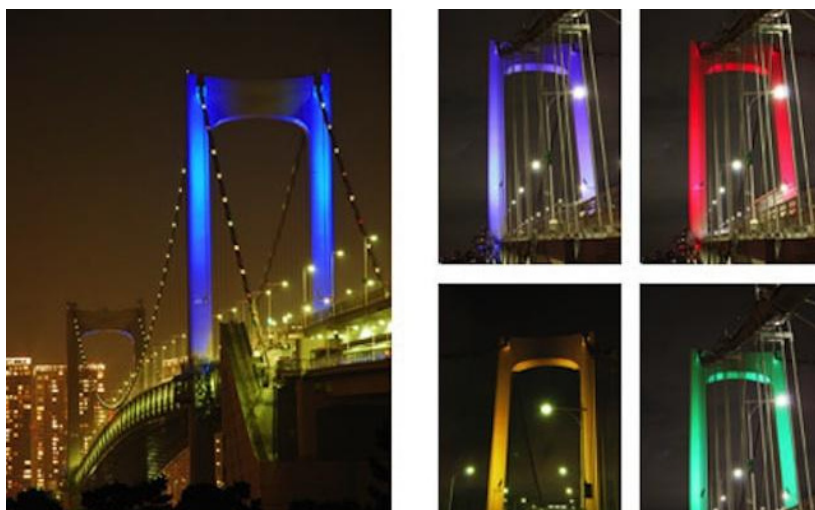
- 2013년 3월 4일~7일 일정으로 방문예정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평가위원의 시찰을 앞두고, 도쿄 게이트 브릿지는 3월 1일~10일간 일몰부터 자정까지 조명을 점등함. 이 조명은 교량 측면에 연속 설치한 886개의 LED 컬러 조명으로 하늘색, 은색, 보라색, 초록색, 빨강색으로 구성되어 올림픽의 오륜을 이미지화 함.



주: 2012년 5월 24일~6월 3일 개최된 「2020년 올림픽·패럴림픽 입후보도시 선정」을 기념한 특별점등시의 모습 (촬영장소: 와카스(若洲)해변공원)

〈도쿄 게이트 브릿지의 점등 모습〉

- 레인보우 브릿지는 3월 4일 당일 18시~24시까지만 점등행사를 실시하고, 이와 동시에 도쿄 스카이트리, 도쿄타워, 도쿄도청 제1본청사에서 3월 4일부터 7일까지 특별 조명점등행사를 실시함.



〈레인보우 브릿지의 특별점등행사 모습 (2013년 3월 4일)〉

- 도쿄 도심과 오다이바를 연결하는 모노레일의 운영자인 유리카모메(ゆりかもめ) 주식회사는 올림픽 홍보의 일환으로 3월 1일부터 올림픽 유치 엠블럼 디자인의 스티커를 부착한 열차를 상시 운행하고, 일부 역에 홍보 광고판을 부착함.



차량(전면, 측면)



전면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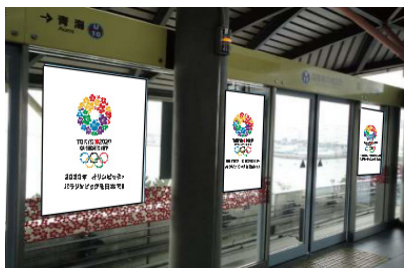


차내광고(창 위)



〈유모카모메 차량의 올림픽 광고판 이미지〉

- 유리카모메는 차량 3대의 전면·측면 도어에 올림픽 엠블럼 디자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현재 운행 중인 전 차량에 대하여 차량별로 4곳에 엠블럼 포스터를 부착함.
- 또한 유리카모메 역 중 히노데(日の出), 아리아케 테니스의 숲(有明テニスの森) 역의 플랫폼,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에도 엠블럼 스티커를 부착하며, 역 직원 역시 엠블럼 디자인의 배지 및 유니폼을 착용할 방침임.
- 유리카모메 주식회사의 올림픽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은 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되는 2013년 9월 7일까지 6개월간 이루어질 예정임.



〈유모카모메 차량 및 역 플랫폼의 홍보광고판 이미지〉

- 이밖에도 도쿄都是 주식회사 소니와 협력하여 긴자에 위치한 소니빌딩에 IOC 평가위원들의 방일 일정에 맞추어 올림픽 유치 응원 플랫카드를 부착함.



〈소니빌딩 앞의 올림픽 응원 플레카드〉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02/20n2l900.htm)

(www.tokyo-np.co.jp/article/tokyo/20130222/CK2013022202000172.html)

(www.yurikamome.co.jp/core_sys/images/news/00000685/base/003.pdf?1362384056)

(<http://response.jp/article/img/2013/02/28/192453/532901.html>)

산 업 · 경 제

‘리옹,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라벨로 친환경 이미지 강화 (프랑스 리옹市)

- 리옹市는 2010년부터 프랑스에서는 유일하게 ‘리옹,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라는 도시브랜드 라벨을 만들어 선정된 업체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市에서 공인한 제품을 시민이 좀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리옹,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라벨〉

- 리옹市는 이 라벨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제품과 친환경 서비스를 시민에게 가시적으로 선보이며, 이러한 제품 및 서비스 사용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운동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도시 자체의 친환경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함.
 - 또 이를 통해 공인 및 유통 과정을 혁신하고, 라벨 부착업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더 나은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음.
- 요식업, 식품, 섬유, 교통, 장인(기술직 자영업), 에너지, 관광, 금융, 화장품, 서비스, 공간, 문화행사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가치에 참여하는 지역 업체 및 단체들(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 협동조합 등)이 지원 가능하며, 선정위원회에서 인적자원 경영과 거버넌스 능력, 환경 영향 평가, 윤리적 소비촉진 능력, 민주적 시민윤리에 기반한 절차, 혁신 능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라벨 부착 업체 또는 단체를 선정함.

(www.lyon.fr/page/economie/economie-sociale-et-solidaire/lyon-ville-equitable-et-durable.html)

행 정 · 재 정

2. 노년층의 이익을 대변할 원로 대표 선출 (독일 바이에른주 뮌헨市)

- 뮌헨市는 시의회와 행정 영역에서 노년층의 이익을 대변하게 될 원로 대표(Seniorenvertretung)를 우편투표를 통해 2013년 3월 19일 선출할 예정임. 원로 대표는 정당에 소속되지 않는 무보수 명예직 위원으로서 선거일 현재 뮌헨市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60세 이상 인구 2,000명당 1인씩 선출하게 됨.
 - 60세 이상 주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원로대표들은 원로자문위원회(Seniorenbeirat)와 원로대표전체회의(Seniorenvertreterversammlung)를 구성하게 됨.
 - 원로자문위원회에는 각각의 구에서 최고 득표를 한 원로대표로 구성되며, 원로대표는 구별로 노년층 인구비례에 따라 3명에서 15명을 선출하게 됨.
 - 원로대표는 각 구에 거주하는 노년층의 이익을 대표하게 되며, 원로자문위원회는 공적 기구로서 구의 관심사 및 불만사항을 시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
 - 이번 선거에서 선출되는 169명의 원로 대표는 2013년 6월에서 2017년 6월까지 4년 동안 활동하게 됨.

(www.muenchen.de/rathaus/Stadtverwaltung/Sozialreferat/Sozialamt/Alter-und-Behinderung/Seniorenbeirat/seniorenvertretungswahl.html)

일자리 창출과 교육을 강조한 2013년 주정부 정책방향 발표 (뉴욕주)

- 뉴욕주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도모, 미래 세대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교육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2013년 주정부 정책방향을 발표함.
- 뉴욕주는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일자리 창출과 교육이라 밝히고, 경제개발 위원회 활동과 고등교육기관들과의 협력을 강조함. 특히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과 민간부문의 하이테크 육성을 지원하고, 신기술을 가진 신생기업이나 연구기관에 부동산 관련 세금과 법인세를 면세해 주기로 함.
- 또 학문적 아이디어의 상용화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Innovation Network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신생기업이 지속적으로 뉴욕주 내에 머무르도록 정부 차원에서 벤처캐피탈 자본을 지원하며, 주립대와 각 주요 도시 시립대학과 연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기로 함.
- 민간과 협력하여 Green Bank를 설치하고 향후 수년간에 걸쳐 업무용, 주거용 건축물에 태양전지판 설치를 지원할 계획임.
- 뉴욕주 내에서 재배,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매장에 면세혜택을 주고, 지역 농산물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Taste-NY 운동을 전개함.
- 뉴욕주 북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3개 카지노 시설을 건설하고, 카지노 수익의 90%는 교육, 10%는 지역 재산세 완화에 사용할 계획임.
- 이밖에도 뉴욕주 내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 보건, 채용, 방과후 교육 등의 기타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며, 주정부 차원에서 신규 주택 건설을 위한 펀드 마련 프로그램인 House NY program을 시행할 예정임.

(www.nytimes.com/interactive/2012/01/12/nyregion/20120112-state-of-the-city-address-text.html)

(www.NYGetInvolve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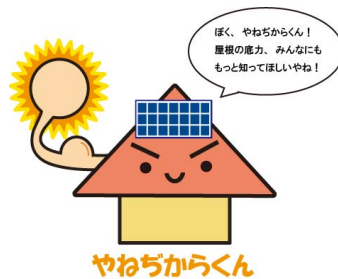
(www.governor.ny.gov/press/01092013-cuomo-agenda-2013)

도 시 환 경

3. 주택용 태양광발전 보조금 제도를 대체할 ‘지붕의 힘’ 프로젝트 시행 (도쿄都)

- 도쿄都 환경국은 공익 재단법인 도쿄都 환경공사와 제휴하여 주택용 태양광발전 보조금 제도를 대체할 ‘지붕의 힘’(屋根ぢから) 프로젝트를 시작함. 이는 기존의 도시 및 국가의 지원금 제도에 의해 과거 주택용 태양광발전 도입의 저해 요인이었던 비용 문제가 크게 개선됨에 따라, 도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주택용 태양광발전을 보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임.
- 주택용 태양광발전 설치에 보조금을 지급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해당 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kw 당 설치비용이 40% 가까이 감소(840만원→525만원)하여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이 확보됨. 이에 보조금을 중단하면서도 도입 가능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도쿄都 내 주택에 태양광발전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붕의 힘’ 3단계 대책을 발표함.
 - 첫째, 저금리 대출 제공과 대리점 관리가 가능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대출과 할부의 방법으로 더 많은 사람이 초기 투자비용 부담 없이 쉽게 주택용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둘째, 합리적인 태양광발전 시스템 가격에 발전량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기본 포함 요건으로 설정하여 유지비용의 부담을 덜어줌.
 - 셋째, 웹사이트 상담 창구를 설치하여 중립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정보 전달과 다양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붕의 힘’ 프로젝트의 캐릭터 이미지를 만들어 프로젝트 전반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함으로써 프로젝트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효율적 진행에도 도움을 주도록 함.
 - 도쿄都의 지붕이 가진 잠재력을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시각적 상징성을 이용하여 만듦.
 - 마스코트의 트위터 계정(@yaneyane_tokyo)을 만들어 누구나 쉽게 관련 정보의 획득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과 연계된 딜러는 마스코트의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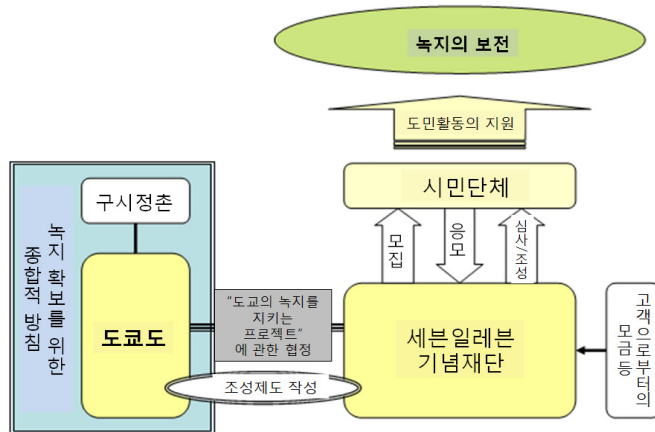
〈‘지붕의 힘’ 프로젝트
마스코트 ‘야네치카라 군’〉

- ‘지붕의 힘’ 프로젝트는 주택용 태양광발전 설치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의 경감과, 설치 및 유지 문제에 대한 의문·불안을 해소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함.
 - 법적으로 판매점 조사가 의무화되어 있는 금융기관과 연계해줌.
 - 판매점에 의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여 양질의 사후관리를 제공함.
 -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태양광발전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도쿄도민의 의문이나 불안을 해소함.

(www.kankyo.metro.tokyo.jp/climate/renewable_energy/tokyosolar.html)

4. ‘도쿄의 녹지를 지키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민간단체 선정 (도쿄都)

- 도쿄都는 신규 녹지의 창출과 도시에 있는 기존 녹지의 보전을 중요과제로 삼고, 2010년 5월 구시정촌(도서지역 제외)과 합동으로 “녹지확보를 위한 종합방침”(緑確保の総合的な方針)을 수립함. 종합방침은 계획기간 10년으로, 도쿄都 내 기존 녹지의 위치·면적, 녹지의 신규창출을 수반하는 마치즈쿠리 사업 등을 도면화하여 시민에게 공표하고, 새로운 녹지보존 시책으로 “경사지 녹지의 보전방안” 등을 제안함.
- 종합방침의 일환으로 “도쿄의 녹지를 지키는 프로젝트”에 따라 실시된 “민간기금과의 연계를 통한 녹지보전” 시책은 현재 도쿄都의 녹지를 보전하는 데 중요한 시책으로 자리잡음.
 - 도쿄都는 이 프로젝트에 따라 2010년 2월 세븐일레븐 녹지기금(현, 세븐일레븐 기념재단)과 ‘도쿄의 녹지를 지키는 프로젝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도쿄都 전체의 녹지보전을 지원하는 새로운 민간단체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지원 및 녹지 보전활동 실시단체에 대한 지원을 시작해 현재 3년째를 맞이함.
 - 이 사업은 세븐일레븐 기념재단이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환경 NPC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도쿄도 지역에 한정하여 추진되는 새로운 사업으로 도쿄도와 세븐일레븐 기념재단이 협력하여 단체를 심사·선정함.
 - 보조금의 재원은 도내의 세븐일레븐에 놓인 모금함에 모금된 고객들의 기부금이며, 세븐일레븐 직원들의 기부금도 일부 포함됨.



<도쿄의 녹지를 지키는 프로젝트의 지원체계>

- 2013년 2월 20일, 도쿄都 도시정비국은 단년도 지원단체 12곳, 2년간 지원단체 8곳 등 총 20곳의 시민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2013년 지원예산은 약 3,736만원(320만엔)임.

<‘도쿄의 녹지를 지키는 프로젝트’ 2년간(2012~2013년) 지원단체>

단체명	활동명
만남 원예살롱 나데시코 (ふれあい園芸サロン・なでしこ)	공원의 화단 가꾸기
쿠마노공원 자원봉사사회 (熊野公園ボランティアの会)	“소생하라! 쿠마노공원의 연못” 재생활동
NPO법인 자연환경아카데미 (自然環境アカデミー)	하치오지시의 마을주변 산지 보전활동
미도리넷 KOTO 타츠미기지 (みどりネットkoto辰巳基地)	꽃 모종을 키워 다른 단체에 공급
NPO법인 꽃과 녹지의 마을 미타가 창조협회 (花と緑のまち三鷹創造協会)	녹지 보전 및 관리활동
사토야마 어린이 운영 실행위원회 (里山キッズ運営実行委員会)	초등학생들과 공동으로 산지보전 활동
카메이도7초메 남공원 커뮤니티 가든 (亀戸七丁目南公園コミュニティーガーデン)	마을꽃밭 만들기 활동
NPO법인 사람 자연 리더 코토 (人ネイチャーリーダー江東)	어린이들과 함께 자연재생 활동

<‘도쿄의 녹지를 지키는 프로젝트’ 단년도(2013년) 지원단체>

단체명	활동명
히가시무라야마의 풍경을 지키는 모임 (東村山の原風景を守る会)	타마호(湖)의 녹지보호 활동
로쿠센공원 꽃 자원봉사 (六仙公園花ボランティア)	꽃 키우기 활동
도립 히가시아마 미나미공원 동우회 (都立東大和南公園友の会花葉心雑草の会)	화단만들기 사업
타마호수 녹도 화단 동우회 (多摩湖緑道花壇友の会)	커뮤니티 가든 주변의 기초공사 사업
FoE Japan	도시의 나무관찰 및 도시수목 보호사업
자연체험형 원더스쿨 (自然体感塾ワンダースクール)	파크 드 아트(パーク deアート)공원에서 공작활동, 수목 보호사업
카시누마 성지 미도리회 (勝沼城址みどりの会)	고성 주변의 녹지보전사업
도시녹화를 생각하는 모임 (都市緑化を考える会)	자연관찰 활동 및 녹지보전사업
NPO법인 코스파 (コスファ: COSFA)	‘COSFA’ 시모키타자와 공원 만들기 사업
특별양호노인홈 와쇼우엔 가족회 (特別養護老人ホーム和翔苑 家族会)	입주자들과 녹지조성사업
작은 생명을 지키는 모임 (小さな命を守る会)	작은 초목을 지키는 사업
세타가야 수변의 즐거운 학교 (せたがや水辺の楽校)	아이들이 자연과 접하는 공간 만들기 사업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02/20n2k300.htm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02/20n2k301.htm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02/20n2k303.htm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 내 과실수 심기를 장려하는 워크숍 개최 (뉴욕市)

- 뉴욕市는 수년간 시행해온 ‘100만 그루 나무 심기’(Million Trees NYC) 프로그램을 통해 가로수나 공원수 등 공공 공간의 수목뿐 아니라 사유지나 상업용 토지

에도 20% 이상의 수목 증가 효과를 거둬오고 있음. 2013년에는 100만 그루 나무 심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과실수 심기를 장려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워크숍을 개최함.

- 뉴욕시 환경보전국(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은 과실수 심기가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신선한 과일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빗물 흡수를 돕고, 열섬현상을 완화하며, 도심 과실수 관리에 참여하는 시민 간의 교류를 증가하는 등의 다양한 이점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워크숍을 계획함.
 - 워크숍을 통해 과실수 중에서 관리가 쉬운 종을 소개하고, 공공 농장이나 공립학교 캠퍼스와 개인 정원, 커뮤니티 정원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과실수 심기가 안전한 먹거리 제공방법의 일환임도 함께 홍보함.
 - 워크숍에서는 세션별로 도시농장의 이점과 세팅 방법, 정원을 활용한 지역 농장 관리방법, 사례 발표(커뮤니티 정원 및 학교 정원 사례), 도시 토양관리 등에 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음.
- 뉴욕시는 100만 그루 나무 심기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단순히 나무심기만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수목에 관련된 전문지식 및 관리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또 이를 통한 시민 간의 교류와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매해 소규모 프로젝트를 기획·시행하고 있음.




"Fruits of the Urban Forest"
A New York City ReLeaf Spring 2013
Urban Forestry Workshop

Cosponsored by:
Consolidated Edison Company
Green Apple Corps
J&J Weld, Inc.
NY Chapter Americ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s
NY Dep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 Urban Forestry
NYC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NYC Department of Parks & Recreation
NYC Housing Authority
New York Restoration Project
NYC Urban & Community Forestry Council
Three New York
USDA Forest Service Urban Forestry Program
Council Cooperative Extension
NYC Soil & Water Conservation District
Brooklyn College

New York City ReLeaf is Region II of a statewide program managed by the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Bureau of Private Land Services. Funding is provided by the Urban & Community Forestry Program. Volunteer members of New York City ReLeaf are interested citizens, forestry professionals, educators, researchers, business professionals, green non-profit representatives, and government officials.



2013 ReLeaf Workshop
"Fruits of the Urban For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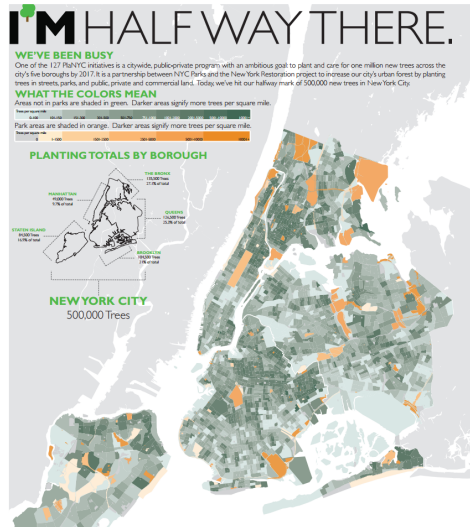


Friday, March 8, 2013
9:00 AM to 4:00 PM

at
Brooklyn Borough Hall
209 Joralemon Street, Brooklyn, NY 11201

(LA credit approval in process,
CNLP - 5.5, ISA - 4.75)

〈뉴욕시 도시 과실수 수목을 위한 워크숍 홍보지
(앞면 이미지)〉



〈100만 그루 나무 심기 2013년 현재
진행 상황 현황도면〉

(www.dec.ny.gov/lands/5307.html)

(www.milliontreesnyc.org/html/misc/releaf_workshop.shtml)

(www.milliontreesnyc.org/downloads/pdf/2013_ReLeaf_Workshop.pdf)

(<http://milliontreesnyc.org/downloads/pdf/mtnyc500k.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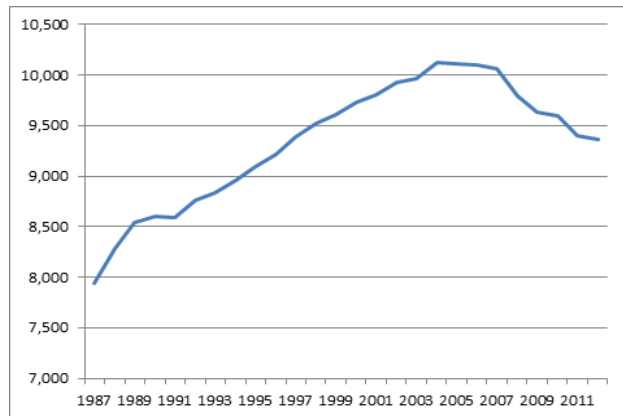
도 시 교 통

미국 가구통행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통행 패턴의 변화 (미국)

- 미국 연방 교통국은 2013년 3월 5일 가구통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미국 전반에 교통통행 패턴의 변화가 있었다고 발표함. 미국 전반의 통행패턴 변화는 크게 자동차 평균 총 통행거리의 감소와 재택근무비율의 증가로 요약될 수 있음.
- 자동차를 이용한 평균 총 통행거리는 2004년을 정점으로 8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2011년과 비교해서는 0.4% 감소하였음.
-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감소와 자동차를 대체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비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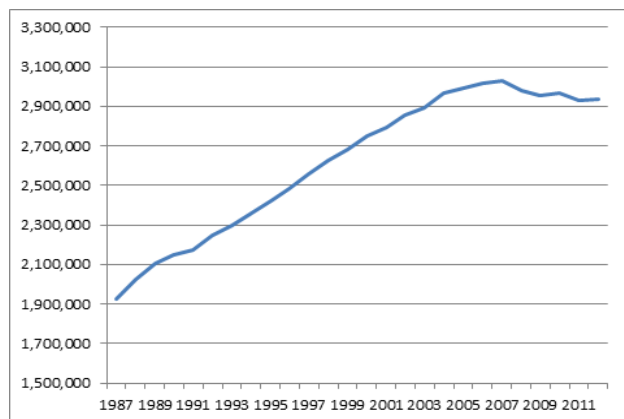
증가, 대중교통 이용자의 증가, 도시의 집중화로 인한 변화, 그리고 적극적인 수요관리 정책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총 통행거리는 2006년 이후 증가세와 감소세가 반복되고 있음.
- 또한, 승용차 평균대수와 여성운전자의 증가세는 정점에 이르러 더 이상의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함.



Source: FHWA and Census Bureau

〈연도별 승용차 이용 평균 통행거리 변화
(1987~2012년, 단위: miles)〉



Source: FHWA and Census Bureau

〈연도별 승용차 이용 총 통행거리 변화
(1987~2012년, 단위: miles)〉

-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이상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자 수가 1,300만명으로 10년전에 비해 400만명이 증가(35%)하였다는 점임.
- 이는 통신기술과 정보기술의 발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컴퓨터/엔지니어 분야에서의 증가가 다른 분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재택근무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콜로라도의 Boulder 지역으로 총 10.9%가 적어도 하루는 집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www.census.gov/newsroom/releases/archives/american_community_survey_acs/cb13-41.html)

(www.washingtonpost.com/blogs/wonkblog/wp/2013/03/05/commuting-in-the-u-s-is-long-and-hellish-but-at-least-it-hasnt-gotten-worse/)

(www.ssti.us/2013/02/per-capita-vmt-ticks-down-for-eighth-straight-year/)

(www.jconline.com/article/20130306/NEWS11/303060003/Census-600-000-travel-50-miles-work?nclck_check=1)

시내버스 정류장의 70%가 장애인 휠체어 이용이 가능 (런던시)

- 세계에서 가장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한 버스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런던시는 이에 멈추지 않고 정류장 설계 지침을 마련하여 버스정류장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Bus Stop Accessibility Programme)을 추진한 결과, 2013년 2월 1일 런던 시내버스 정류장의 70%가 휠체어 이용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고 발표함.
- 런던시는 2008년에 버스 정류장 29%만이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이용 가능하였는데 런던교통공사가 장애인 접근성을 2013년 4월까지 70%로 높이기로 목표를 정하고, 정류장에 대한 1차 관리를 맡고 있는 기초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시설 개선에 예산을 투입한 결과 2달 앞서 목표를 달성하게 됨.
- 버스정류장 설계 지침을 통해 장애인 휠체어가 타기 쉽게 저상 버스와 높이가 맞도록 정류장 보도 높이를 조정하였음.
- 2016년까지 런던 시내버스 정류장의 95%가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계획이며 여기에 1,800만 파운드(약 295억 434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계획임. 또한 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승객이 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여기에 5,000만 파운드(약 820억 6500만 원)도 추가 투입할 계획임. 버스뿐 아니라 지하철 및 지상철(overground) 28개 역도 향후 10년 동안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한 구조로 개조될 예정임.

- 런던에서 장애인이 가장 이용하기 편한 대중교통 수단은 버스임. 런던 시내에서 운행되는 총 8,500대 버스는 모두 휠체어 이용자를 태울 수 있는 저상 휠체어 탑승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또 시력과 청력이 약한 장애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 및 시각 안내 장치가 설치되어 있음.

- 주중 일일 총 버스이용횟수는 평균 650만 회에 달하는데, 이중 장애인 무료 승차권 이용자는 2%에 달함.
- 런던시는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암행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2012년 4/4분기에 실시된 조사 결과, 비밀 조서관 95%가 운전자 및 관련 요원이 장애인 관련 안내 및 운영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함.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27126.aspx)

(www.tfl.gov.uk/assets/downloads/accessibile_bus_stop_design_guidance.pdf)

(www.tfl.gov.uk/assets/downloads/tfl-guide-to-approved-mobility-scooters.pdf)

보행 친화적인 교통정책으로 교통혼잡 개선 (스페인 폰테베드라市)

- 스페인의 폰테베드라市는 지속되어온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도시 중심지역으로의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보행로 확장 등을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무료 자전거 대여 시스템과 30km/h 속도 제한 방지턱 등을 설치하는 등의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을 시행한 결과 상당한 교통혼잡 개선효과를 보고 있음.

- 정책초반에는 주민반대도 있었지만, 현재는 주민의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보행 친화적 교통정책이 도시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관광객을 유인

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 市는 대중교통과 보행이 승용차 이용에 비해 친환경적이고 시민의 건강에도 좋다는 캠페인을 함께 벌이고 있음.
-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된 보행지도 ‘Metrominuto’는 유럽연합 교통 위원회와 스페인 장애인협회로부터 상을 받기도 함.



〈폰테베드라市가 제작·배포하고 있는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된 보행지도 ‘Metrominuto’〉



〈도심곳곳에 설치된 주요 지점까지의 보행거리 표시〉



〈도심 중앙에 있는 광장으로의 승용차 통행을 금지한
폰테베드라市〉

(www.thepolisblog.org/2013/02/metrominuto-walking-map.html)

‘조심해!’라는 도심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전개 (호주 시드니市)

– 시드니市는 지난 5년간 도심의 주요 기차역 주변에서 교통사고로 446명이라는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도심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조심해!’(Watch out!)라는 도로교통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음. 이 캠페인은 운전자와 보행자를 대상으로 한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출퇴근 시간에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의식을 일깨우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캠페인의 첫 번째 부분인 ‘보행자를 조심해’(Watch Out People About)는 일반 운전자와 배달 및 택시업 등에 종사하는 직업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3월 1일부터 택시업계 및 노조, 임대차량 회사 간행물,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운전자들은 1)교차로에서 꼬리 물고 서 있지 않기, 2)적색 신호에서 운행하지 않기, 3)보행자가 차량을 의식하고 있다고 가정하지 않기, 4)보행자를 위해 언제든지 정지하도록 준비하고 있을 것 등을 지키도록 교육을 받음.
- 프로젝트의 두 번째 부분인 ‘차를 조심해’(Watch Out Cars About)는 4월 22일부터 타운홀, 센트럴, 그리고 위냐드 기차역 주변에 설치될 옥외 게시판 광고가 주요 사업임. 이 광고는 최근 교통사고 통계를 이용해 보행자들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 이에 따라 각 기차역에는 해당 지역의 통계 메시지가 게시되는데, 예를 들면 타운홀의 경우 “타운홀에서는 지난 5년

간 기차역 기준 반경 300미터 이내 지역에서 172명의 교통사고 사상자가 발생했음”과 같이 게시됨.

- ‘조심해!’ 프로젝트는 지방정부의 도로안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뉴사우스웨일스주 ‘도로·해상서비스국’(Roads and Maritime Services)과 시드니市를 포함하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지방정부의 공동재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차를 조심해’ 캠페인 광고 포스터〉

(<http://www.sydneymedia.com.au/watch-out-for-other-road-users/>)